

국어문법에서 통사구조와 의미구조

김 기 력

1. 형태와 의미, 통사구조와 의미구조

언어는 형태와 의미의 양면성을 가진 존재이다. 이때 의미는 언어의 뜻에 관한 내면적인 대상임에 비해, 형태는 표현부분 즉 소리를 가리키는 외면적 대상이다.

형태의 본질적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형태 (form) 라는 단어의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 형태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여러가지 의미를 찾아내는 방법의 하나는 상대어(opposite)와 비교하는 것이다. '내용, 재료, 요소, 주요대상' 등이 그 상대어들인데, 만일 내용(content)이 상대어로 설정된다면 형태는 외부적인 모습(external appearance or style)을 뜻하고, 재료(matter)가 상대어라면 형태는 외형(shape)을 뜻하고, 요소(element)가 상대어라면 형태는 성분들의 배열이나 배치(disposition or arrangement of part)와 같은 의미가 된다(W. Tatarkiewicz, 1980, 220-243). 우리가 관련지어 논의하는 형태는 내용과 상대어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미와 대조적 관점에서 파악된다.

한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특히 언어 연구에서 중요한 쟁점의 하나인데, 의미를 지시(reference)로 보는 견해를 비롯하여, 의미를 개념, 또는 심리적 실재로 보는 견해, 의미를 지시의 의의(sence)로 보는 견해 등, 의미에 대한 개념부터 일관되지 못하였다(이익환 1985). 그러나 여기서 의미란 언어표현의 두 면 즉 형태와 의미 가운데 한 면이라는 점에서 객관적 대상으로 인식된다.

언어의 형태와 의미는 다른 관점에서 비교되기도 하는데, 품사분류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의미, 형태, 기능 가운데 의미와 형태의 관계는 위에서 말한 관계와 다른 관점의 하나로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형태 또는 형태적 특질은 외부적 표현으로서 '소리'나 '글'이 아니라 대상 언어의 어형변화(굴목 또는 준굴목)를 지칭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문법상에 나타나는 여러 통사현상도 형태적 특질에 포함된다. 의미적 특질은 역시 이와 상대되는 것이다.

문법연구에서 의미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기술문법에서 의미를 가능하면 배제하려 했던 노력이 있었지만, 의미를 떠난 언어는, 또 언어의 연구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언어연구에서 가능하면 배제하려 했던 원인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어문법의 경우, 낱말의 계열적 관계를 결정하는 품사의 구별에서 의미보다는 형태적 특질을 더 중시하거나, 통합적 관계의 고찰에서도 의미보다 기능이나 통사적 관계를 중시한 것은 문법에서 의미가 기준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품사분류에서 '생각씨, 걸림씨'의 구별이

나 ‘굴푼 있음, 굴푼 없음’의 구별이 형태 중심을 반영한 것임에 비해, 소유격보다는 관형격이라는 규정을 중시하는 것은 통사적 특질을 의미보다 중시한 것이다(최현배 1959, 허웅 1975).

형태적, 통사적 특질은 홀로, 또는 다른 형태와의 상관적인 관계에서 드러나는데, 국어에서 체언이 조사를 취하고, 용언이 굴푼을 하는 것이나, 조사나 어미가 의존형식임에 비해 부사, 관형사, 명사 등이 자립형식인 점 등은 모두 형태적 특질이다. 다른 형태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문법현상들 예컨대 시제, 존대, 피동 등의 통사적 특질들도 넓은 의미에서 형태적 특질이라 할 수 있다.

의미, 의미구조에 대한 견해도 단순히 형태에 상대되는 개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연구의 중심 방법으로 제시된다. 의미가 언어이론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인데, 의미구조가 문장의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예컨대 동사를 구체적인 문맥 환경에서 특수화하여 규정하는 상태, 과정, 동작, 주권과 같은 기본적인 의미 단위는 동사에 수반되는 명사를 선택한다고 보는 것이 이러한 주장의 하나이다(최창렬 1983, 89).

언어의 연구에서는 때로는 형태를 중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미를 중시하기도 하는 문법관의 차이가 있어왔다. 국어 문법연구에서도 이런 현상은 예외일 수 없는데, 아주 최근에 있는 논의 중에 ‘의미-기능론’ 위주의 문법론과 ‘순수 통사론’ 위주의 연구 방법의 대립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여기서 순수 통사론적 문법론은 ‘구조-의존적’ 문법이론을 말하는 데, 모든 문법현상을 관련된 통사구조에 연관지어 설명하려는 문법이론이다(양동휘 1988, 69-86).

언어 연구의 관점을 의미, 기능에 두든가 또는 순수 통사론에 두든가, 이 두 문법이론은 의미와 형태 양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의미구조의 분석은 형태적인 차이에 의하여 도움을 받고 있으며, 통사적 구조의 파악도 의미를 고려하지 않는 가운데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문법연구에서 어떠한 관점을 더 앞세워 고찰해야 하고 어떤 관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더 설명적이고 명시적인 문법이 되는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김기혁(1983)에서 다룬 ‘보조동사의 생산성’에 제기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부분적 대응이 있는 황병순(1987)의 ‘국어의 상 표시 복합동사 연구’에 대한 검토를 연구의 동기로 하고 있다. 전자가 형태, 즉 통사구조를 중심으로 한 것임에 비해 후자는 의미구조를 중심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다루어질 국어의 대상이 보조동사구성(황병순(1987)에서는 상 표시 복합동사라 함)이 되는 것은 이러한 동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은 문체제기에 필요한 한 사례이다. 이 글의 목표는 형태 또는 통사구조와 의미 또는 의미구조의 문법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를 제기함이다.

이 글에서는 합성동사와 보조동사구성이 구별되는 통사적 특질을 여러가지로 제시할 것인데, 이 두가지 구성을 구별하여 주는 것으로는 이 통사적 특질이 가장 명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의미구조적 특징은 여기서 비교하여 논의하지는 않고자 한다. 통사구조 중심의 문법연구와 의미구조 중심의 문법연구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우세한가를

비교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미구조보다 객관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온 통사구조적 특징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이 설명적 충족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사구조적 특징에 대한 고려없이 의미구조만으로 국어문법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비판할 것이다.

2. 복합동사구성과 생산성

동사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구성으로는, 복합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통어적구성과, 합성동사(Compound Verb)로 된 형태적 구성, 본동사와 보조동사로 이루어지는 보조동사구성이 있다.¹⁾

통어적구성은 이름 그대로 통어적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생산적이다. 이에 비해 합성동사는 두 동사의 결합의 규칙성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통어적 합성동사의 경우 그와 관련된 통어적 구성과 연관되지만 이 통어적구성이 합성동사로 굳어지는가 여부가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생산성이 없는 형태론적 구성으로 다루어진다.

보조동사구성은 형태적구성과 통어적구성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형태, 통어적 구성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조동사라는 동사의 하위범주가 제시하여 주는 바와같이 보조동사는 다른 본동사와는 다른 통사, 의미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보조동사구성을 형성하는 방법에서는 본동사와 보조동사가 생산적으로 결합하여 보조동사구성을 형성함으로써 보조동사구성의 통어적구성으로서의 특징을 보인다.²⁾

보조동사가 보조동사구성을 이루면서 보이는 생산성의 차이를 김기혁(1983)에서 지적한바 있다. 여기서 생산적인 보조동사와 제약이 있는 보조동사와의 구별은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고, 본동사와 보조동사의 결합상의 제약은 본동사와 이와 결합하는 보조동사의 의미와 연관되어 있음을 밝혀두었다. 이러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한 것은 종래의 보조동사가운데는 생산적으로 보조동사구성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보조동사로 볼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지적한 점이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황병순(1987)에서는 상 복합동사(황병순(1987)에서는 보조동사구성을 상 복합동사라 하였다)에 대한 생산성에 관한 기술은 현상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고, 생산적인 것과 비생산적인 것이 나타남은 후자가 상적특성 구비조건이나, 선택계약상에 제약이 적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점은 김기혁(1983)에서 보조동사구성의 선택제약을 보조동사의 자체 의미와 선행동사와의 의미충들의 원인과 결과라고 설명한 바 있기 때문에, 현상의 제시라는 지적은 온당하지 못하다. 제시된 현상의 원인을 선택제약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결국 두 견해는 의

¹⁾ '통어적구성', '보조동사구성', '합성동사'의 차이에 대해서는 김기혁(1983: 138) 참조.

'통어적구성'이나 '통사적구성'은 동일한 것이다. 이 글에서 '복합동사구성'이라 함은 이 세 구성을 모두 포함하는 범위의 동사의 결합을 의미한다.

²⁾ 보조동사구성의 형태·통어적 구성으로서의 특징에 대하여는 김기혁(1987) 참조.

전을 같이 한다(김기혁 1983, 143, 144, 146, 147).

그러나 황병순(1987)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음 사항은 필자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고 통사구조와 의미구조라는 두 문법적 기준의 입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황병순 1987, 143). “김기혁(1983)에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상 복합동사가운데 생산성이 없는 것이 있다는 점이다. 김기혁(1983: 151-157)에서 이러한 상 복합동사를 상 복합동사로 취급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던진 것은 일반적으로 상복합동사의 V_2 는 생산적이라는 점을 중시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상 복합동사의 V_2 가운데 비생산적이 있다는 것은, 상 복합동사가 비생산적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비생산적인 이유가 있다는 쪽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비생산적이라고 하는 ‘V어나다’에서 ‘V’에 놓일 수 있는 동사는 [+종결성, -순간성]을 지녀야 하고, 그 상태가 이동상태여야 한다. 왜냐하면 ‘나다’는 ‘안(숙, 숨겨짐)’에서, ‘밖(걸, 드러남)’으로 이동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결성, -순간성]을 지닌 많은 동사가 ‘V어나다’의 V_2 에 놓이지 않는다.³⁾ 이는 많은 동사가 [+종결성, -순간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 상태가 안(숙, 숨겨짐)에서 밖(걸, 드러남)으로 이동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위의 논의를 요약하면, 종래 보조동사로 다루어진 ‘나다’가 생산적으로 보조동사구성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조동사로 보기 어렵다는 필자(1983)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나다’의 비생산성은 오직 ‘나다’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특징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다’를 보조동사로 규정하였다.

이 글에서는 황병순(1987)에서 제기하고 있는 선택제약조건이나, 상적특성 구비조건에 대하여는 일단 논의하지 않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글은 위 저서에 대한 비평문이 아니고 필자(1983)의 견해에 대해 잘못된 해석이 있는가 여부를 의미와 형태의 관점에서 재론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나다’가 보조동사일 수 없다는 필자의 견해를 확인시키고자 한다.

보조동사로 다루어져 온 ‘나다’를 보조동사로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김기혁(1983, 153)에서는 ‘나다’가 생산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점 외에도, “보조동사가 사용된 동사구의 경우 후행 보조동사가 선행하는 본동사의 의미를 더해주는 의미적 특징이 있어서 보조동사를 제거하면 의미상의 차이를 가져오지만, 문장은 문법적임이 일반적이다. 보조동사를 제거하였을 때 문장이 성립될 수 없거나 보조동사가 사용된 문장과 전혀 다른 의미를 보인다면 두 동사는 본동사와 보조동사의 관계가 아니고 합성동사이야 하는 결론이 나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다’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보인 바 있다. 이는 ‘나다’가 보조동사일 수 없음을 보이는 통사구조적 특징의 하나이다.

이외에도 ‘나다’가 보조동사일 수 없음을 ‘들다’, ‘먹다’와 비교하면서 설명한 바 있다. 보조동사구성이 일반적으로 통어적구성과 중의적임에 비해, ‘먹다’, ‘들다’, ‘나다’는 그러한 중의성이 없는 점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더욱 보강하여, ‘나다’가 보

³⁾ 이 문장의 V_2 는 V가 잘못 표기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조동사가 아님을 역시 ‘들다’, ‘먹다’와 함께 비교하면서 세분되고 정밀한 통사적 현상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3. 합성동사구성 ‘나다’, ‘먹다’, ‘들다’의 통사현상

이 글에서 다루는 ‘나다’가 합성동사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여기서는 몇가지 통사 현상을 검증할 것이다. 의미구조상의 관계는 여기서 논의하지 않는데, 의미적 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통사적 타당성에 대한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통사적 타당성이 더 객관성을 갖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합성동사에 대한 구성상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대부분의 합성동사는 어미 ‘아’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두 동사가 계기적 의미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복합문에서 이루어진 동사의 통어적 구성이 합성동사로 굳어져 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합성동사 가운데에는 통어적 구성이 굳어져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동사들이 있다. 이들은 통어적 구성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의미도 통어적 구성에서 굳어진 합성동사와는 다른 양상을 띤다.

이들은 편의상 통어성 합성동사와, 비통어성 합성동사로 구분하고 그 보기를 들면 다음과 같다.⁴⁾

- (1) 가. 통어성 합성동사: 잡아먹다, 굶어모이다, 구워먹다, 굶어죽다, 꺼내놓다, 집어넣다 ...등.
 나. 비통어성 합성동사: 나타나다, 뛰어나다, 떠나다, 태어나다, 일어나다, 속여 먹다, 때려먹다, 치먹다, 우그러들다, 줄어들다, 줄아들다, 조어들다.

모든 복합문의 통어적 구성이 통어성 합성동사로 굳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이 합성동사로 굳어지는데 여기에는 아직 특별한 규칙이 발견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통어성 합성동사(1.가)는 복합문이 문장의 접속으로 환원될 수 있는 공통성이 있다.

- (2) 가. 그들은 그 소를 잡아(서)먹었다.
 나. 유선이는 낙엽을 굶어(서)모았다.
 다. 우리는 오징어를 구워(서)먹었다.

위 보기는 합성동사와 이에 관련된 환원될 수 있는 통어적 구성을 보여준다. 이에 비하여 비통어성 합성동사(1.나)는 통어적 구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 여기서는 논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나다’, ‘들다’, ‘먹다’로 이루어지는 합성동사를 보기로 들겠다.

⁴⁾ 여기서 구분한 통어성 합성동사, 비통어성 합성동사는 일반적으로 합성동사 구별에서 쓰이는 통어적 합성동사, 비통어적 합성동사와는 다르다.

- (3) 가. *남호가 드디어 나타(서)났다.
- 나. *남호는 그 분야에 아주 뛰(서)었다.
- 다. *그들은 우리 걸을 영영 떠나(서)났다.
- 라. *그들은 우리를 속여(서)먹었다.
- 마. *우리는 항상 크게 때려(서)먹었다.
- 바. *강물이 많이 줄어(서)들었다.
- 사. *냄비에 물이 많이 졸아(서)들었다.

‘나다’, ‘들다’, ‘먹다’로 이루어지는 비통어성 합성동사의 보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⁵⁾

- (4) 가. 나타나다, 놀아나다, 드리나다, 떠나다, 뛰어나다, 배겨나다, 먹어나다, 물러나다, 벗어나다, 붙어나다, 빼어나다, 달아나다, 살아나다, 일어나다, 우러나다, 배어나다, 남아나다, 녹아나다, 새어나다, 비켜나다 ... 등.
- 나. 오므라들다, 접어들다, 덩비어들다, 빠져들다, 줄어들다, 줄어들다, 조어들다, 우그러들다, 물러들다, 달려들다, 휘어들다, 뛰어들다, 꺾어들다, 쭈그러들다, 오그라들다 ... 등.
- 다. 속여먹다, 놀려먹다, 부러먹다, 알져먹다, 붙어먹다, 들어먹다, 떨어먹다, 썩먹다, 놀아먹다, 팔아먹다, 알아먹다, 때먹다, 해먹다, 꺾먹다, 부쉬먹다, 골려먹다 ... 등.

이들 비통어성 합성동사의 보기를 위에 나열한 이유는 이들의 후행동사 ‘나다’, ‘들다’, ‘먹다’가 보조동사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동일한 소리(sound)를 가지고 있는 단순동사 즉 본동사와 구별되는 비교적 일관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먹다’의 경우는 본동사와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또 다른 합성동사 즉 통어성 합성동사와는 달리 역행수식을 한다. 보조동사는 선행 본동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의미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국어의 일반적인 수식-피수식 관계의 어순과는 다르다. 그런데 이들 동사들도 보조동사처럼 역행수식의 의미 경향이 있는데, ‘속여먹다’의 경우, ‘먹다’가 ‘속이다’를 수식하는 현상을 보기로 들 수 있다.

위 보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 동사들이 이루는 합성동사의 수가 많은 점도 이들 동사를 보조동사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요인들이다.

보조동사의 역행수식 현상과 이들 합성동사들의 역행수식 관계를 일반적인 수식 관계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⁵⁾ ‘나다’를 보조동사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4가)는 합성동사가 아니다. 그러나 필자는 이들이 합성동사라고 보고 이와같이 분류하였다. 이점은 뒤에 밝힐 것이다.

- (5) 가. 아름다운 여자, 새 옷
나. 빨리 달린다. 매우 아름답다.
- (6) 가. 그는 술을 단숨에 마셨다.
나. 그는 술을 단숨에 마셔버렸다.
- (7) 가. 그 호수는 점점 썩었다.
나. 그 호수는 점점 썩어 갔다.
- (8) 가. 호수물이 많이 줄었다.
나. 호수물이 많이 줄어들었다.
- (9) 가. 우리는 장난으로 그를 속였다.
나. 우리는 장난으로 그를 속여먹었다.
- (10) 가. 우리는 오징어를 먹었다.
나. 우리는 오징어를 삶아 먹었다.

보기 (5)가 국어의 일반적인 수식 관계를 보여줌에 비해, (6) (7)은 보조동사구성의 역행수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8) (9)는 비통어성 합성동사의 역행수식 관계를 보여준다. (10)은 통어성 합성동사는 선행동사가 후행동사를 수식하는 순행 수식관계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만을 중심으로 고려하면, ‘나다’뿐만이 아니라, ‘들다’, ‘먹다’도 보조동사라고 설정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와같은 보조동사구성과 유사한 특징보다는 합성동사로서의 특징이 더 크기 때문에 이들은 보조동사가 아닌 합성동사를 구성하는 동사로 규정된다. 이제 그러한 결과의 근거를 자세히 들어보겠다.

‘나다’, ‘들다’, ‘먹다’ 동사가 보조동사가 아닌 합성동사의 후행동사임을 증거하는 현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생산성의 문제이다. 이 동사들이 이루는 복합동사구성은 보조동사구성에 비하여 극히 제한되어 있다. 보조동사는 대부분의 선행동사와 결합이 가능하지만, 특정동사와만 제약이 있다. 이와는 달리 이들 동사들은 대부분의 동사와 이어질수 없고, 일부 동사와만 이어질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불규칙한 구성인 합성동사구성이기 규정적 구성인 보조동사구성이 아니라는 것이다.⁶⁾

둘째는 일반 언중의 인식상의 문제이다. 이들 동사들이 이루는 복합동사구성은 대부분이 사전에 올라있다. 즉 (4)의 보기들의 대부분은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이들이 보조동사구성으로 인식된다면, 보조동사구성이 형성되는 것은 통어적 문법현상이므로 이들 복합동사구성이 따로 사전에 오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들이 사전에 오르는 것은 이 복합동사구성을 언중이 합성어로 인지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은 ‘가다’, ‘버리다’, ‘보다’ ... 등의 보조동사가 형성하는 보조동사구성이 사전에 거의 실리는 일이 없는 것과 비교된다.

⁶⁾ 보조동사구성과 이들 합성동사의 생산성의 차이에 대해서는 김기혁 (1983) 참조.

세계는 이들 동사를 보조동사로 볼 경우 이에 선행하는 동사는 본동사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보조동사구성의 본동사는 홀로도 문장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복합동사구성의 선행동사도 홀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동사들은 선행 동사만으로는 홀로 쓰일 수 없는 문장이 많은데, '나다'의 경우가 특히 심하다. (11)은 보조동사구성의 본동사가 홀로 문장을 구성함에 비해 (12)는 비통어성 합성동사의 선행동사가 홀로 문장을 이루지 못하는 보기이다.

(11) 나는 창문을 열었다. (열어보았다. 열어주었다. 열어버렸다. 열어놓았다 ... 등.)

(12) 가. *그가 나타났다. (나타나다.)

나. *그의 정체가 들었다. (드러났다.)

다. *설악산은 경치가 빼다. (빼어났다.)

라. *새로운 국면에 접었다. (접어들었다.)

세계는 통어적 구성과의 상호 관련성 문제이다. 보조동사는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본동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본동사들끼리 이루는 복합문의 통어적 구성과 보조동사구성 사이에 중의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 동사들은 중의적 문장을 이루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나다'의 경우가 특히 심하다.

(13) 가. 유선이는 남호에게 과자를 꺼내주었다. (꺼내(서) 주었다.)

나. 유선이는 그 서류를 찢어버렸다. (찢어(서) 버렸다.)

다. 남호는 무심코 책을 펴보았다. (펴(서) 보았다.)

(14) 가. 철수가 깨어났다. (*깨어(서) 났다.)

나. 우리는 그 곤경을 벗어났다. (*벗어(서) 났다.)

다. 풀이 돌아났다. (*돌아(서) 났다.)

라. 우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받아(서) 들었다.)

(13)의 보기들은 보조동사구성과 통어적 구성이 중의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14)에서는 복합동사구성과 관련된 통어적 구성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중의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12)의 보기가 선행동사들이 홀로 쓰일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 비해 (14)는 '나다'가 본동사로 홀로 쓰일 때도 제약이 심함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네가지의 통사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김기혁(1983)에서 개략적으로 언급이 있었던 것이다. 지금부터는 이외에도 '나다'가 보조동사가 아니고 합성동사를 구성하고 있음을 보이는 다른 통사현상을 들어보겠다.

다섯째는 국어의 대표적 문법현상인 주체높임법과의 관계이다. 통어적 구성과, 합성동사, 보조동사구성은 주체높임법에서 차이가 있다. 통어적 구성이나, 보조동사구성은 본동사와 보조동사에 모두 주체높임의 어미가 쓰이거나, 혹은 후행동사나, 보조동사에만 주체높임의 어미가

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 합성동사는 오직 후행동사에만 주체높임의 표시가 가능하고 선행동사에는 불가능하다.

- (15) 가. 선생님께서 떠나버리셨다.
 나. ?선생님께서 떠나셔버렸다.
 다. 선생님께서 떠나셔버리셨다.
 라. 선생님은 그 음식을 잡수어보셨다.
 마. 선생님은 그 *음식을 잡수셔보셨다.
- (16) 가. 선생님께서 그 책을 꺼내(서) 주셨다.
 나. ?선생님께서 그 책을 꺼내시어(서) 주었다.
 다. 선생님께서 그 책을 꺼내시어(서) 주셨다.
- (17) 가.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
 나. *선생님께서 돌아셔갔다.
 다. *선생님께서 돌아셔가셨다.

보조동사구성에서 주체높임의 표시가 보조동사에만 이루어지는 경우 (15.가)는 보조동사구성을 형태적 구성으로 언중이 인식하는 때이고, 주체높임의 표시가 본동사와 보조동사에 모두 이루어지는 경우 (15.다)는 이 구성을 통어적 구성으로 인식하는 경우이다. 복합문에서 형성된 통어적 구성의 경우 두 동사에 모두 주체존대의 어미가 올 수 있음을 (16)이 보여준다.

그러나 합성동사의 경우에는 오직 후행동사에만 주체존대의 표시가 가능한데 이는 보조동사구성과 구별된다. (17)은 이를 보여주는 보기이다. 그러므로 주체높임의 표시는 보조동사구성과 합성동사를 구별하는 통사적 장치가 될 수 있다. ‘나다’, ‘들다’, ‘먹다’로 이루어지는 복합동사구성을 살펴본다.

- (18) 가. 선생님은 체중이 늘어나셨다.
 나. *선생님은 체중이 늘으셔나셨다.
- (19) 가. 선생님께서 어려운 고비를 벗어나셨다.
 나. *선생님께서 어려운 고비를 벗어나셔나셨다.
- (20) 가. 선생님께서 일찍 일어나셨다.
 나. *선생님께서 일찍 일으셔나셨다.
- (21) 가. 할아버지께서 그 일에 빠져들으셨다.
 나. *할아버지께서 그 일에 빠지셔들으셨다.
- (22) 가.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속여먹으셨다.
 나.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속이셔먹으셨다.

이들 복합동사구성들은 통어적 구성이나 보조동사구성처럼 두 동사에 주체높임의 어미가 올 수 없고 합성동사처럼 후행동사에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들은 형태론적 구성으로서 합성동

사와 동일한 통사적 특징을 보이고 있음이 밝혀졌다.

여섯째는 국어의 대응화 현상과의 관계이다. 국어의 용언 대응화는 통어적 구성과, 형태적 구성이 합성동사, 형태·통어적 구성인 보조동사 구성이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

복합문에서 이루어진 통어적 구성은 독립적인 두 동사의 결합이기 때문에 두 동사가 각각 대응화 되거나 두 동사 전체에 대한 대응화가 가능하다. 다음은 통어적 구성에 대응화가 적용된 보기이다.

- (23) 가. 유선이는 모자를 벗어(서) 던졌다.
 나. 남호도 모자를 그래(서) 던졌다.
 다. 남호도 모자를 벗어(서) 그렸다.
 라. 남호도 모자를 그렸다.
 마. 남호도 그렸다.
- (24) 가. 유선이는 맥을 만들어(서) 보냈다.
 나. 남호도 맥을 그래(서) 보냈다.
 다. 남호도 맥을 만들어(서) 그렸다.
 라. 남호도 맥을 그렸다.
 마. 남호도 그렸다.

이와같은 통어적 구성의 대응화에 비하여 보조동사구성은 보조동사구성 전체의 대응화가 가능한 점은 동일하지만, 각각의 동사에 대한 대응에서는 보조동사만의 대응은 불가능하고 선행 본동사의 대응은 가능하다. 보조동사만의 대응이 불가능한 이유는 보조동사가 자립성이 없고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보조동사구성의 대응화이다.

- (25) 가. 유선이가 우유를 마셔버렸다.
 나. 남호도 우유를 그래버렸다.
 다. *남호도 우유를 마셔그렸다.
 라. 남호도 우유를 그렸다.
 마. 남호도 그렸다.
- (26) 가. 유선이가 우유를 마셔보았다.
 나. 남호도 우유를 그래보았다.
 다. *남호도 우유를 마셔그렸다.
 라. 남호도 우유를 그렸다.
 마. 남호도 그렸다.

합성동사는 통어적 구성이나 보조동사구성처럼 선행동사나 후행동사의 분리 대응은 전혀 불가능하고 오직 합성동사 전체에 대응화가 이루어진다. 이는 합성동사는 이미 완전히 하나의 동사로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합성되기 이전의 상태를 전체로 한 분리대응은 합성동사의 존

재를 부정하는 것이 되므로 불가능하다.

- (27) 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나. *할머니도 그래가셨다.
 다. *할머니도 돌아가셨다.
 라. 할머니도 그러셨다.

‘나다’, ‘들다’, ‘먹다’로 이루어지는 복합동사구성이 보조동사구성이려면 이 구성의 선행동사만의 대응화가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하다. 반면에 구성전체에 대한 대응화만 가능하다. 이는 (27)에서 본 합성동사와 동일한 대응화를 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인데, 이러한 통사현상은 이들 복합동사구성들이 합성동사임을 증거한다.

- (28) 가. 유선이가 일어났다.
 나. *남호도 그래났다.
 다. *남호도 일어그랬다.
 라. 남호도 그랬다.
- (29) 가. 화살이 과녁을 벗어났다.
 나. *총알도 과녁을 그래났다.
 다. *총알도 과녁을 벗어그랬다.
 라. 총알도 과녁을 그랬다.
 마. 총알도 그랬다.
- (30) 가. 철수가 나를 속여먹었다.
 나. *영희도 나를 그래먹었다.
 다. *영희도 나를 속여그랬다.
 라. 영희도 나를 그랬다.
- (31) 가. 손님이 줄어들었다.
 나. *수입도 그래들었다.
 다. *수입도 줄어그랬다.
 라. 수입도 그랬다.

(28)~(31)의 보기 중 불가능한 문장은 모두 분리 대응화가 된 것들이다. 이는 합성동사인 (27)과 완전 일치한다. 그러므로 이 동사들은 합성동사이다.

일곱째는 동사의 연속과 자리바꿈 현상을 들 수 있다. 보조동사구성에서 보조동사는 비교적 자유롭게 보조동사끼리 자리를 바꾸면서 연속적으로 이어날 수 있다. 다음은 보조동사가 둘 이상 쓰인 문장들이다. 이와같은 보조동사의 연속은 이론적으로는 무한히 연속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셋 이상 연속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 (32) 가. 그는 그녀를 만나보아주었다. (만나주어보았다)
 나. 나도 것처럼 떠들어대버렸다. (떠들어버려졌다)
 다. 나는 그 약을 먹어보아주어버렸다. (먹어주어보아버렸다)
 (먹어보아버려주었다) (먹어주어버려보았다)
 (먹어버려주어보았다) (먹어버려보아주었다)

보조동사의 연속과 자리바꿈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들 보조동사끼리의 자리바꿈은 결과적으로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지만, 위 보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자유스럽다. 그러나 합성동사는 이러한 자리바꿈이 불가능하다. 다음은 동사가 셋이 이어진 합성동사가 자리바꿈이 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 (33) 가. 적군이 쳐들어왔다.
 나. *적군이 쳐와들었다.
 (34) 가. 아이들이 뛰어들어왔다.
 나. *아이들이 뛰어와들었다.

‘나다’, ‘들다’, ‘먹다’로 이루어지는 복합동사구성이 보조동사구성이라면 이 동사들도 다른 보조동사와 함께 자리바꿈을 할 수 있고 또 연속적으로 쓰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동사들은 다른 보조동사와 자리바꿈이나 연속사용이 불가능하다.

- (35) 가. 유선이는 일찍 일어나보았다.
 나. *유선이는 일찍 일어보아났다.
 (36) 가. 영수는 기적적으로 살아나주었다.
 나. *영수는 기적적으로 살아주어났다.
 (37) 가. 강물이 많이 불어나버렸다.
 나. *강물이 많이 불어버려났다.
 (38) 가. 나도 모르게 깊은 사랑에 빠져들어버렸다.
 나. *나도 모르게 깊은 사랑에 빠져버려들었다.
 (39) 가. 그들은 우리를 심하게 부러먹어냈다.
 나. *그들은 우리를 심하게 부러대먹었다.

이와같은 자리바꿈이나 연속의 불가능함은 (33) (34)에 든 합성동사와 동일한 현상이다. 그러므로 이들 복합동사구성은 보조동사구성이 아니고 합성동사임이 명시적으로 밝혀진다.

여덟번째는 동사의 반복현상이다. 보조동사는 같은 동사를 반복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보조동사가 양태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모든 보조동사들이 자연스럽게 반복표현을 이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조동사의 반복이 보조동사 전반에 나타나는 통사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점은 앞에서 살펴본 통사현상과는 구별된다.

- (40) 가. 이제 그 일은 잊어버려버려라.
 나. 이 말을 꼭 명심해두어두어라.
 다. 그 일은 해보아볼 만합니까?
 라. 이제 거의 다 해가간다.
- (41) 가. ?나는 그를 도와주어주었다.
 나. ?그 아이가 울어대낸다.
 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냈다.

(40)은 자유스러운데 (41)은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러한 표현들은 구어체에서는 가끔 사용되지만 문어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41)도 가능하다는 언중도 많이 있다. ‘나다’, ‘들다’, ‘먹다’로 이루어지는 복합동사구성들은 이와같은 동사의 반복이 불가능하다.

- (42) 가. *유선이가 일찍 일어나났다.
 나. *영수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났다.
 다. *강물이 많이 불어나났다.
 라. *사랑에 빠져들어들었다.
 마. *우리를 부러먹어먹는다.

이러한 통사현상은 이들이 보조동사구성이 아니고 합성동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충분한 조건은 되지 못하지만 보조동사구성이 아니라는 소극적 주장이 될 수 있고, 합성동사가 될 수 있다는 필요조건은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동사 ‘나다’, ‘들다’, ‘먹다’ 특히 ‘나다’가 보조동사가 아님을, 생산성의 문제, 사전에 등록하는가 여부에 따른 언중의 인식, 선행동사의 서술성, 이들 구성과 관련된 본동사와의 중의성 여부, 주체높임법, 동사의 대응화, 동사의 연속과 자리바꿈, 동사의 반복 등의 여러가지 통사현상을 중심으로 논증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이 이루는 복합동사구성은 합성동사임이 명시적으로 밝혀졌다.

이와같은 통사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단지 현상적인 것이 아니다. 보조동사가 생산적인 것임에 비해 이들 복합동사구성이 생산적이지 못한 것은 두 구성이 다른 구성이기 때문이다. 보조동사가 본동사끼리 이루는 통어적 구성과는 다르지만, 보조동사구성을 이룰때 본동사와 보조동사 사이에 통어적 구성 방식으로 결합됨에 비해 합성동사는 불규칙한 조어법에 의한 형태적 구성이기 때문에 두 구성의 생산성은 다르게 된다.

사전에 합성동사들만이 등록되는 것도 언중의 문법관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조동사구성은 통어적 방법으로 구성되고 합성동사는 형태적 방법으로 구성됨이 나타난다. 선행동사를 본동사로 볼 수 있는가를 결정하거나 이미 화석화 된 합성동사인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주체높임법에서 보조동사구성의 본동사, 보조동사에 모두 주체높임이 가능함은 보조동사구성을 통어적 구성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합성동사가 두 동사에 주체높임의 표시가 올

수 없는 것은 이를 형태적 구성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우연한 현상이 아닌 문법적 현상임을 반영한다. 대용화에서 보이는 보조동사구성과 합성동사의 차이도 마찬가지로 언중의 문법적 능력을 반영한다. 결국 ‘나다’가 이루는 복합동사구성이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보조동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은 단지 현상을 제시한 것만이 아닌 이와같은 여러가지 통어적 근거에 따른 문법현상을 파악한 결과이다.

보조동사가 연속적으로 쓰이거나,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점 또 반복적으로 쓰일 수 있는 점은 보조동사가 양태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합성동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아주 굳어져, 화석화된 합성동사로서는 당연하다. 이러한 통사현상도 단순히 제시가 아닌 이들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설명적 충족성을 갖는다.

4. 맺음말

국어문법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는데 있어, 통사구조와 의미구조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할 수 있는가와, 또 이 두 구조는 서로 어떻게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 필자의 관심의 출발이었다.

이 문제는 국어 문법의 체계화를 비롯하여 문법 학문에 이르기까지 두루 적용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짧은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법현상을 모두 검토할 수 없으므로 주로 보조동사구성과 합성동사 사이에 나타나는 통사 현상을 중심으로 국어문법에서, 통사구조를 중심으로한 문법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여러가지 통사적 현상을 검토한 결과, ‘나다’는 보조동사로 보기 어렵고, 보조동사로 보지 않는 것이 문법의 체계화에도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나다’는 합성동사를 구성하는 동사로 규정된다. 그러므로 ‘나다’를 보조동사로 규정하려는 노력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 ‘나다’가 가지고 있는 비생산적 특징을 의미구조로만 파악하려는 해석방법은⁷⁾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해도 보조동사구성과 합성동사를 구분하여 주는 통사구조적인 면을 전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정곡을 헤아린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나다’와 관련하여 비교된 보조동사구성과 합성동사의 문제로 한정지어 볼 때는, 의미구조를 중심으로 한 문법연구보다, 통사구조를 중심으로 한 문법구조가 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한 가지 현상으로 통사구조 중심의 문법연구가 의미구조 중심의 문법연구보다 우선적이거나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다.

앞으로도 통사구조 중심의 문법, 의미구조 중심의 문법에 대하여는 계속 검토되어야 하며 어느 한가지 방법의 우월성보다는 서로 보충하는 방법론도 검토하여야 될 것이다.

⁷⁾ 황병순(1987)에서는 많은 동사가 [+종결성, -순간성]을 지나고 있으나 그 상태가 안(속, 숨 집)이 밖(걸, 드러남)으로 이동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김기혁. 1983. 보조동사의 생산성. 「연세어문학」 16집.
 _____. 1987. 「국어 보조동사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양동휘. 1988. 의미-기능 만능주의 문법론에 대하여 (I). 「어학연구」 24권 1호.
 이익환. 1985. 「의미론 개론」. 한신문화사.
 최창렬. 1983. 「한국어의 의미구조」. 한신문화사.
 최현배. 1982. 「우리말본」. 최현배(1959), 이홍번씨 고침 펴냄, 정음사.
 황병순. 1987. 「국어의 상표시 복합동사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허 응. 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Bolinger, D. 1977. *Meaning and form*. Longman Group Ltd.
Tatarkiewicz, W. 1980. *A History of Six Ideas, An Essay in Aesthetics*. University of Warsaw Polish Academy of Sciences.

경희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